

월요광장



문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코르셋을 벗을까? 말까?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활력을 주는 움직임을 느끼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에 점수를 매기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금세 까먹고 두리번거린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점수를 매긴다. "나는 아빠로서 몇 점일까?" "나는 몇 점짜리 딸일까?" "내 삶은 몇 점일까?" "내 여자 친구는 몇 점일까?" 그 답은 몸에 대한 평가다. "내 얼굴은 몇 점일까?" "내 피부는 몇 점일까?" "내 몸매는 몇 점일까?" 꼭 남이 평가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끊임없이 몸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 그리고 그에 맞게 느끼고 행동한다.

영국 출신의 팝가수인 제시 제이(Jessie J)는 '프라이스 태그'(price tag)라는 노래를 통해 현대인들은 자신을 가격표가 붙은 상품처럼 취급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자기 고유의 느낌과 기쁨을 잃어 버리고 산다는 것이다. 이는 뿌리가 깊다. 보통 사춘기를 전후로 몸에 대해 점수를 매기기 시작한다. 몸에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 몸은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몸이 된다. "느기는 몸에서 비추어지는 몸"으로 바뀐다는 것은 주체로서의 몸이 아니라 객체로서의 몸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그 습관이 성인이 되어서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점수의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

은 떠나지 않는다. 연예인과 같은 외모에 들어갈 때에만 인정할 뿐, 그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면 몸은 부끄러움과 혐오, 통제와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뷰티 산업은 불황을 모를 정도로 현대인들의 몸에 대해 엄청난 투자를 하게 한다. 그것을 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사실 현대인들의 몸에 대한 집착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혐오에 기초하고 있다. 사람들은 몸에 투자하기에 하지만 몸이 비명을 하는 것이다. 몸을 그 기준에 맞춰지기 위해 계속 조임을 당한다. 그 기준은 점점 엄격해지고 확실히 바뀐다. 여성이라면 "나는 43kg 미만이어야만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나는 00사이즈를 입을 수 있어야만 돼!"와 같다. 어찌 보면 네 발가락을 꺾어 형질로 칭칭 동여매 발이 자라지 못하게 했던 중국의 전족 문화가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성들 사이에서 '탈 코르셋'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보정 속옷을 뜻하는 코르셋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강요받아온, 아름다움으로 인한 몸의 속박을 의미한다.

에센대 짙은 화장, 서클렌즈, 하이힐, 과도한 다이어트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실제 여성의 건강에 해를 주거나 일상생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에도 불구하고 세뇌되어 왔던 것들이다. 맞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성의 꾸밈 자체를 강요된 문화로 보고 화장이 나 긴 생머리 등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상황이 이러니 여성들 사이에서도 논란과 혼란이 일고 있다.

셋? 연인 꾸미지 말아야 할까? '탈 코르셋'의 핵심은 꾸미느냐 꾸미지 않느냐가 아니라 몸의 주체성 회복에 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3인칭의 몸에서, 내 몸의 감각을 느끼고 삶의 주체로서의 1인칭의 몸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코르셋을 벗을지 말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따뜻한 주의를 기울이고 몸과 친해지는 것이다. 몸을 통제하는 대신 몸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몸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고, 몸에 점수를 매기는 습관을 멈출 수 있고, 건강하게 몸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다. 자신을 싫어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그 어떠한 노력도 오래갈 수 없다. 자기 변화는 자기 사랑의 결과이지, 자기 사랑의 조건이 아니다. 몸도 그렇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說

10여 년 표류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해법 없나

13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이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사업 공모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의 계획서가 부적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민선 4기에서 시작된 사업이 민선 7기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평가심의위원회는 최근 민간 사업자 공모에 단독 응모한 A업체의 사업 계획서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 업체는 관장은 사업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자금 동원 능력, 공공 기여 방안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과거 군 사격장이었던 광주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273만6000㎡)에 유원지와 체육 시설, 경관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지만 민간 사업자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 부지는 여태껏 빈터로 남아 있으며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완공돼 운영 중이다.

'3金 시대'의 종언과 정치의 새 패러다임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별세하면서 '3김(金) 시대'가 막을 내렸다. 2009년 김대중,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총리까지 유명을 달리함으로써 1960년대부터 우리 정치권을 풍미해 온 '3김 시대'가 실질적 종언을 고하게 된 것이다.

지난 1926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 전 총리는 육사를 졸업했으며, 1963년 공화당 창당을 주도하고 그해 치러진 6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9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961년 처참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에 가담하면서 현대 정치사의 전면에 등장했으며, 같은 해 중 앙정보부를 창설해 초대 부장에 취임한 것을 시작으로 줄곧 영연한 '제2인자의 길'을 걸어왔다.

정치 풍운아, 변신의 귀재 등으로 불리며 한국 현대 정치사의 골격과 궤를 같이 한 보수 정객이었던 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뉜다. 우선 김영삼·김대중

최대 변수는 일부 시민 단체의 반대다. 이들은 중소 상인의 피해를 우려하며 조성 사업에서 '유동 재벌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민관위원회를 꾸린 뒤 상가 시설 면적을 2만4170㎡ 이하로 제한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 하지만 "상가 면적이 비좁아 투자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체의 입장에 단독 응모한 A업체의 사업 계획서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 업체는 관장은 사업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자금 동원 능력, 공공 기여 방안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과거 군 사격장이었던 광주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273만6000㎡)에 유원지와 체육 시설, 경관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지만 민간 사업자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 부지는 여태껏 빈터로 남아 있으며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완공돼 운영 중이다.

'3金 시대'의 종언과 정치의 새 패러다임

전 대통령과 정파를 넘나드는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며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출범에 기여함으로써 한국 정치사를 이끈 큰 인물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반면 군사쿠데타로 독재정권에 부여했고, 총정권의 맹주로 지역 갈등을 조장했으며 권력형 부정부패의 원조라는 부정적 평가 또한 엄존한다.

하지만 정적까지 대통령을 만든 김대 이커로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출범에 그가 남긴 족적은 선명하다.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이 두 번의 과정에서 그가 펼친 '협상과 타협'의 정치는 협치(協治)의 정신이 사라져 버린 지금의 정치 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지난 지방 선거에서 몰락한 보수 진영이 다시 회생하려면 김 전 총리가 추구했던 실리와 민생 및 실사구시를 진정한 보수의 가치로 되새기면서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김상훈
변호사

뇌물(賂物)과 선물(贈物) 사이

2005년 이후 B 또는 B가 설립한 게임 회사는 5건의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모두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지만, 향후 형사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시기였다.

잘 나가는 기업인 B가 잘 나가는 검사인 친구 A에게 배폰 호의는 다음과 같다.

① 2005년 6월경 넥슨 1만주 양수 기회 제공, ② 2005년 10월경 주식 인수 대금 4억2500만 원 ③ 2006년 11월경 넥슨 재판 신주 8537주 인수 ④ 2008년 2월경 제네시스 무상 사용 ⑤ 2009년 3월경 위 제네시스 차량 처분 명의 등록비 3000만 원 ⑥ 2007년 10월~2014년 12월경까지 8회에 걸쳐 해외여행 경비 4700여만 원 등이다. B의 호의를 받은 A는 2015년 넥슨 재판 주식을 매각해 129억 원의 차익을 거두었다. 기록에는 B가 A에 쏟은 위 호의의 이유를 '자신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형사 사건 등 분쟁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검사인 A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증거 조사돼 있다.

기업인의 검사에 대한 일방적 호의(好意), 이에 대한 법적 평가는 어떨까? 우선 넥슨 1만주 양수 기회 및 넥슨재

판 신주 인수에 관해서는 양도인과 A를 연결해 준 것에 불과하고, A가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기회일 뿐 별도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현재까지 환송심을 포함해 4개 판결의 일치된 결론이다. 당시 하늘의 별따기처럼 구하기 어려운 넥슨 주식 취득 기회를 주고, 대박이 예상되는 넥슨 재판 주식 교환 기회를 부여해 실제로 9년여 만에 1600% 이상 수익률을 현실화한 것이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하니 쉽게 납득하기 어렵지만, 주식의 역동성, 가치 예측의 어려움 등을 십분 감안해 일단 넘어가자.

넥슨 재판 매각 차익 129억 원의 토대가 된 넥슨 주식 인수 대금 4억2500만 원, 1년여간 고급 승용차 무상 사용, 그 후 인척 명의로 등록받기 위한 등록비 3000만 원, 7~8년간 해외여행 경비 4700여만 원 등은 어떨까? 대법원 파기에 의한 환송심의 결론은, A가 받은 돈과 A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며, B는 A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익을 공여한 것에 불과해 직무 관련성도 대가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식 매각 차익 129억 원은 제외하더라도, 5억 원이 넘는 현금, 차량 제공, 해외 여행 경비 직접적 대납에도 대가성이 없을까? 필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뇌물죄에서 직무만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해 공무원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했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 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무에 따라 공무원로 할 일체의 직무(2013도10011 판결)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검찰국, 서울중앙 금융조세조사부를 맡고 있던 A에 대해 B가 제공한 보험용 기회 및 금품 제공이아말로, 뇌물죄의 그것이라 할 것이다.

필자 생각에, 주는 편에서 사후에 그 상당의 교환 가치를 반환받을 생각이 없어야 하고, 받는 편에서 받음지 말지 말지 망설임 정도의 가치를 넘지 않아야 비로소 선물의 영역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선물을 제대로써 금지시키는 과잉 설계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기업인의 검사에 대한 뇌물을 선물로 사면시켜 준 판결이라고 본다.

기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갑)

광주·전남 글로벌 에너지 허브 도약, 날개를 달다

한편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밸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지역 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광주·전남의 산업을 개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으며, 이를 담보할 법적 장치가 시급했다.

이에 본 의원이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에너지 융복합 단지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 후 지난 6월 13일 본격 시행됐다.

이 법의 핵심은 에너지산업 특화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규모 확대하는 것이다. 에너지관련 특화 지역을 '에너지 융복합 단지'로 지정해 중점 육성하며, 이곳에서 생산된 생선산물과 서비스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또한 세계 혜택을 대폭 강화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비율을

기존 지방 이전 기관의 경우 50%를 감면했던 것에 비해 75%까지 확대 감면하도록 했다.

이러한 지원 정책으로 법이 본격 시행되면 2020년까지 500개 이상의 기업이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에 입주하고 향후 2년 안에 양질의 일자리 3만 개 이상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 조성, 세계 혜택,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기관 지원 등 에너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법 시행에 따른 중앙 정부 지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광주·전남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환경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주변 산업 단지를 확대하여 에너지 및 전력 제품 생산, 인증 평가, 연구 개발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융복합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독일 솔라벨리 클러스터,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연료전지 클러스터 등 성공한 에너지 신산업 클러

스터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는 GE, LS산전 등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의 투자가 진행 중이고, 전기연구원 광주 분원 개원도 임박했다. 광주시, 전남도 등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중앙 정부가 합심해 광주·전남 지역이 에너지산업 메카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주·전남 에너지밸리는 단순히 공장 들만 모여 있는 산업단지와는 다르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소 기업으로 창업해 강소 기업으로 자리잡는 선순환 모델을 추구한다.

거기에 더해 기존 제조업과 IT, 바이오 테크 등 연관 산업까지 융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현해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제 광주·전남이 국가적·광역적 관점을 가지고 대한민국 에너지 허브, 더 나아가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발돋움하게 되기를 절실히 바란다.

無等鼓

지난 2015년 9월 2일 아침, 터키의 휴양지 보드룸 해변에 세 살배기 어린이 시신이 떠밀려 왔다. 시리아의 쿠르드계인 아이는 해변에 얼굴을 묻은 채 발견됐다. 안타깝게도 지중해에서 배가 난파돼, 아이 뿐만 아니라 형과 어머니도 모두 숨졌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인류에게 이주(移住)는 삶 그 자체다. 인류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 인류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영토를 넓혀 갔다. 아프리카 사바나 지대를 떠나 미지의 땅

난민

부를 두고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범죄 우려라는 현실론과 인권 보호라는 가치론이 상충하는 가운데 조속한 난민 심사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예멘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내전으로 수천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탈출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유럽에서는 난민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지 오래다. 헝가리에서는 난민을 도우면 징역에 처하는 법안까지 통과됐고, 이탈리아는 난민 구조선 입항을 거부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의 '부모-아동 격리' 정책이 여론 반발로 철회

되기도 했다. 우리 모두는 이주자의 후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는 1950년 흥남 부두를 떠나 거처를 향하는 선박 바르도리아호에 승선했던 피란민이었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과 파시즘을 피해 이탈리아를 떠났던 이민자의 아들이었다. 사실 난민은 우리들의 옛 모습이기도 하다. 예멘 난민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 | | |
|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동 신형 배달 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 경 명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
|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 | 기 획 관 리 국 227-9600 | 업 무 국 220-0551 |
| 정 처 부 220-0632 | 문 화 미 디 어 부 220-0664 | 문 화 미 디 어 부 220-0664 | 문 화 미 디 어 부 220-0664 |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체 육 부 220-0697 | 체 육 부 220-0697 |
| 사 회 2 부 220-0652 | 사 진 부 220-0693 | 사 진 부 220-0693 | 사 진 부 220-0693 |
| ※국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